

한국 텐티박스 '9일 학습반' 참가한 신수련생들, "대법을 만난 연분 소중해"

[명후이왕] 무한 폐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연을 찾아 대법(大法) 수련을 시작하는 이들이 북카페 텐티박스(天梯書店)에서 열린 '9일 학습반'에 모였다. 파룬궁(法輪功)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강의를 시청하고 연공 동작을 배우는 9일 학습반은 9일간 오전, 오후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제 77, 78 차 9일 학습반의 마지막 수업이 있던 지난 8월 26일, 파룬궁에 입문한 신수련생들은 5장 공법 선통자초파(神通加持法) 동작까지 모두 배운 뒤 간단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수련 입문 과정과 수련하면서 느낀 체험 등 각자의 수련 경험을 나눴다.

'파룬궁 진상', 2년 전 대만에서의 기억 떠올려

얼마 전 부천역에서 받은 파룬궁 책자가 인연이 됐다는 이 구칠(65세) 씨. 그는 책자의 내용을 보고, 2년 전 대만에서 본 파룬궁 진상 내용이 떠올랐다고 한다. 당시 그가 본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 추악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좀 더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와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 이번에는 달랐다. 이 씨는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고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마음속으로 이런 수련을 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찾고 있었어요.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볼



▲ 8월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가한 신수련생들이 파룬궁 제 5장 공법인 선통자초파(神通加持法)를 연마하고 있다.

조용한 시간을 갖기 힘들잖아요. 파룬궁은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종교처럼 얽매이거나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최근 중공 병독(무한 폐렴) 전파로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요즘, 파룬궁이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수련할 수 있고, 생활과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을 접한 지 한 달 남짓 된 이 씨는 최근 들어 전립선비대증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매일 깊이 잠들지 못할 만큼 많게는 밤사이 세 번 화장실을 가야 했던 그는 최근 깊은 수면에 들 수 있었다. 밤사이 화장실을 가느라 깨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수련을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워"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럽다'는 말이 있다. 서울 송파구 김희동(70세) 씨는 파룬궁 수련의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연거푸 말했다.

얼마 전 송파 성내천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 우연히 파룬궁 전단지 받고 수련을 하게 된 김 씨는 파룬궁을 처음 접해본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파룬궁 반(反) 박해 행사를 두 번이나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매번 수련에 대한 기회를 놓쳤던 것. 그는 이번 9일 학습반 시작을 기다리며 <전법륜(轉法輪)>을 여덟 차례 읽고, MP3로 9일 강의를 들었다. 9일 학습반이 (뒷면에 계속)

파룬궁이 창조한 의학적 기적

길랭 - 바레 증후군 (格林 - 巴利綜合症), 의학에서 특효약이 없으나 파룬궁을 수련해 치유했다.

길림성 연변 도문시 텡스쥘 (滕世軍) 은 어려서부터 체질이 약하고 병이 많았다. 16 살때 갑자기 괴상한 병에 걸렸는데 앉으면 일어날 수 없고 두 무릎에도 힘이없어 오직 팔의 힘에 의지해서야 일어날수 있었고 무릎은 조금만 굽히기만 해도 땅에 주저앉았다. 길림시 철로 병원에서 길랭 - 바레 증후군 (급성 다발성 신경염)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효약이 없어 다만 약을 복용하여 유지할 뿐이고 또 근육이 무력한 (근육이 축소되고 몸이 떨리는) 후유증까지 생겼

다. 그는 선후로 여러가지 기공을 연마했지만 모두 효력이 없을 뿐더러 폐인이 되다싶이했다.

96 년 5 월, 그는 파룬궁수련을 시작했고 '진선인 (真、善、忍) 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됨으로서 신체는 날따라 좋아져 한달후부터는 어떠한 중한일, 힘든일이든 모두 할수 있게 됐고, 병이없어 전신이 가벼웠다. 그는 말했다. "파룬따파는 저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사회에 봉사할수 있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저는 생명 본원의 깊은 곳으로부터 파룬따파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바로 온가족들이 상서로운 행복을 누리고 있을때 하루



밤사이에 검은 구름은 하늘을 가로막았다. 텡스쥘은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제명됐고, 또 3 차례 세뇌 반에 납치되고, 4 차례 불법구속을 당했으며, 2 차례 노동교양에서 고문박해를 받았다. 그리고는 8 년간 유랑생활을 했다.

(앞면의 계속) 시작되기 전, <전법륜 (轉法輪)> 을 읽고 난 후, 그는 술을 끊게 됐다.

"<전법륜 (轉法輪)> 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을 돌아켜보니, 직장에서는 모범이라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지만, 부하직원들을 너무 괴롭히게 아닌가, 내가 업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 씨는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난 게 복"이라며, 중국에서는 박해를 받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인연을 접하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부좌를 한지 17 년 만에 만난 정법 수련"**

대법 (大法) 서적을 구매하기 위해 텐티북스에 왔다가 우연히 교류에 참여하게 된 김승원 씨는 지난 5 월 수련을 시작했다.

"3 개월 전, 지인의 추천으로 연공을 10 분 정도 따라 했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늘 차갑던 몸왼쪽 부분이 따뜻한 걸 느꼈

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수련이 아니라는 것을..."

17 년 동안 가부좌를 했지만, 더 이상 진전도 없이 회의감이 밀려왔던 그녀에게 지인은 파룬궁을 소개해줬다. 평소 함께 가부좌를 하면서 신뢰하던 지인이었기에 더 믿음이 갔다. 지인 역시 몇 년 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다. 김 씨는 처음엔 연공동작을 따라 했고, 이후 <전법륜 (轉法輪)> 을 읽게 됐다.

"대법책을 보는데 에너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눈도 좋아졌어요. 항상 뿌옇게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아서 백내장 검사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제 자신은 눈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전법륜을 읽는데, 흐렸던 눈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안약이 책 읽는 것만 못해서 버리게 됐고요."

그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된 경험도 이야기했다. 평소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을 버리고 싶었지만 쉽게 바꿀 수 없었는데 수련한 뒤 어느날부터 달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혀가 아프기도 하고 맛도 잘 느끼지 못해 먹기 싫어졌다. 이후 자연스럽게 달고 짠 음식을 멀리하게 됐고, 습관도 변했다.

신체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이전과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다. 김 씨는 "일반적으로 책에 아무리 좋은 구절이 있어도 그게 나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수련한 후로는 생활속에서 집착에 거리를 두게 됐고,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불교 공부를 해오다 70 대 노인부터 파룬궁을 시작한 가족의 추천으로 참가하게 된 젊은 직장인,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수련생의 권유로 시작한 50 대 여성 등, 수련 입문의 과정은 모두 달랐지만, 이날 참가자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수련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리덩후이 (李登輝) 는 <9 평 공산당 (九评共产党)> 을 추천 했었다



2005 년 4 월 21 일 , 리덩후이선생은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온 인사들에게 퇴당열조를 일으킨 <9 평 공산당 (九评共产党)> 책을 추천했다 .
(동영상 캡처)

대만 전대통령 리덩후이는 7 월 30 일 98 세로 세상을 떠났다 . 중국인민대학의 “중국

헌정망” “위챗공중호”는 리덩후이가 1995 년에 모교 코넬대학에서 발표한 “민중의 바람, 내

마음에”란 연설을 공유했다 . 이는 욕설이 가득찬 대륙 인터넷에서 한갈래 눈이 부신 번개와 같았다 . 더욱 놀라운 것은 1923 년에 출생한 리덩후이는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다 . 심각히 요해한후 그는 공산주의는 사람을 기편한다고 인식했다 . 일년후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 2005 년 리덩후이는 손에 <9 평 공산당> 을 들고 중공의 진면모를 똑똑히 알려면 <9 평 공산당> 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 그리고 “이런 일을 알게된후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서 퇴출할 것이다 , 퇴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 리덩후이는 중국이 만약 빨리 민주화 , 자유화를 하지 않으면 아시아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고 인정했다 .
대기원

초점 2020 년 사람들은 한차례 또 한차례 역사의 대기원을 견증하다

2020 년 모 멘 트 (朋友圈) 에서 “역사를 견증한다”란 한마디 말이 유행되고 있다 . 1918 년 스페인유행성 독감 이후 또 한차례 전염병 , 1929 년 이래의 가장 엄중한 경제위기 , 54 년에 한번씩 만나는 “일식대 (日食带)” 이 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모두 한가지 일을 말하고 있다 . 이는 곧바로 중공과 중국을 분간하고 중공은 중국인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다 .

7 월 23 일 , 폼페이오는 대중정책에 대해 연설해 중공은 중국인민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 폼페이오는 말했다 . 공산

당의 가장 큰 거짓말은 “14 억 중국인민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 중공정권은 현재 이미 내로남불에 대단히 낭패하고 곤경에 처해있다 . 매주일 , 심지어 매일마다 중공을 겨냥한 폭발성 새소식이 전해진다 . 하지만 붉은벽 안에서 이른바 “성세”를 환호하고 또 이른바 “세월은 조용하고 좋다”속에서 몸부림치는 중국인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적지않은 민중들이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다 . 무엇때문에 중국인은 이처럼 마음을 놀라게 하고 뉘을 뒤흔드는 역사를 견증할 수 있는가 ? 매개 중국인은 응당 자신의 선택을 사

고해 보아야지 않겠는가 ? 탐오 , 부패 , 음란 , 권위집단 , 관료 2 대 , 빈부격차 , 통화팽창 , 도청 , 감시...중국사회는 온통 혼란현상이다 .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나타난다 . 중공이 걱정하는 거칠고 무서운 파도가 이미 닥쳐왔다 . 구멍투성인 “붉은 배”는 전세계의 주목하에 가속도로 전복하고 가라앉는다 . 현재 , 중공의 매개 당원으로 말하면 모두 생사일선이다 . 배를 버리는가 ? 계속 “붉은 배”에 미련 두는가 ? 이 일념지차의 배후에는 오히려 양지와 악념의 최종결투이다 .
대기원

공안 국장의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후

[민후이왕] 50 대인 쟈밍 (가명)은 중국 모 공안국 부국장이 다. 그의 주요임무는 중국공산당 (중공)의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일이다. 중공이 21년 전에 파룬궁 (法輪功) 박해를 시작한 후로부터 그는 박해에 참여하는 수 밖에 없었다.

쟁밍은 파룬궁에 대해서 잘 몰랐다. 고위 당국이 수련생을 감시하거나 체포하도록 지시할 때마다 그는 임무를 완료하는 데 앞장서곤 했다.

지역 파룬궁 수련생들이 여러 차례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수련의 이로운 점을 설명해주고 중공이 퍼뜨린 거짓말을 폭로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 후 수련생들은 그의 악행을 민후이왕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해외에 사는 수련생들은 전화를 걸어서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가담하지 않게 했다. 이런 전화는 어느 정도 그의 행위를 억제하게 했다.

쟁밍은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수련생들은 좋은 사람이므로 박해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부탁했고, 파룬궁은 불가 (佛家) 수련대법이므로 박해하면 응보 받는다고 말했다. 그녀가 중공 조직에서 탈퇴할것인지 묻자 그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 거절했다.

그는 비록 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수련생의 말을 듣고 파룬궁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수년 동안 많은 수련생을 만나면서 그들의 품성이 훌륭하다는 걸 알았다. 한때 그는 수련생을 체포하기 위해 여러 공안을 데리고 수련생의 집에 갔다. 수련생은 집에 없었고, 십 대인 딸이 뛰어나가서 엄마에게 공안

이 찾아 왔다고 알렸다. 쟈밍은 그 소녀를 막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체포를 면했다. 이후부터 쟈밍은 수련생 박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상관의 지시를 가꿈만 따랐다.

2018년, 그는 지역 수련생 재판에 참석했다. 변호인의 무죄 변론을 듣고 그는 마침내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수년 동안 수련을 억압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사실 불법임을 알았다. 이것은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공산당은 일당 독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내가 불법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련생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법원은 이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다’고 스스로 물었다.

엄중한 경고

쟁밍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의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큰 충격이 있었다.

공안국 동료, 공안국장, 일반 공안을 포함해서 그의 지인 중 상당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사망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궁금했다.

쟁밍은 점차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수련생들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늘이 벌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응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이 무렵 파룬궁을 수련하는 친구의 아내가 그에게 탈당을 권했다. 이번엔 그는 탈당에 동의했다.

권한을 이용해 수련생을 돕다

어느 날 국내보안과 공안이 공공장소에서 진상 스티커를 붙이는 나이 든 수련생을 체포했다. 쟈밍은 그 여성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갈 때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그녀가 친척 결혼식장에서 탈당하라고 권한 수련생임을 알았다. 그는 부국장에게 “그냥 시늉만 해”라고 말했다. 부국장은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 부국장은 수련생을 박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수년을 걸쳐 국내보안과 공안들은 파룬궁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되었고, 더는 박해에 가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제 국장이 말했으니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괜찮았다. 공안들은 서류작업을 마치고 그녀의 아들에게 그녀를 집에 데려가게 했다.

2019년 말 무렵, 쟈밍은 부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에게 수련자들을 괴롭히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수련생들이 우리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그들을 구금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자네는 그런 일이 재미있는가? 이 시국에도 아직도 그런 명령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라고 대답했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들은 수련생의 집까지 갔다가 문도 두드리지 않은채 되돌아왔다.

요즘 쟈밍은 회의를 제외하고 거의 사무실에 가지 않는다. 무한 폐렴에 대해 수련생들이 해준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다.